

4m 깎인 무등산 정상 원형복원 어렵다

복원계획 용역 결과 발표
천·지·인왕봉 훼손 심각
6가지 시나리오 제시
최대 10년·최고 187억 소요

공군부대가 주둔 중인 무등산 정상부 복원을 위한 밀그림이 나왔다.

군부대가 이전 후 남게 될 건축물과 철책만을 제거하는 방안부터 1966년 군부대 주둔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안까지 복원의 정도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광주에서의 무등산 상징성을 감안하고, 깎아버린 천왕봉 4m 복원을 포함한 ‘완전 복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도 전문가들은 복원 과정에서의 또 다른 훼손 가능성, 정상부 과거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군 주둔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발표한 ‘무등산 군부대 주둔지역 복원 종합 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무등산 천왕봉·지왕봉·인왕봉 등 정상부 복원 시나리오는 총 6가지가 제시됐다.

군부대 주둔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전체복원(1안·식생복원까지)’을 포함 ▲인왕봉 원형 복원, 지왕봉 현수준 유지(2안) ▲인왕봉 원형복원, 지왕봉 현수준 유지(3안·지나해 콘크리트 더미 걷어냄) ▲인왕봉 원형복원, 지왕봉 현수준 유지, 천왕봉 콘크리트 제거(4안) ▲인왕봉 원형복원, 지왕봉 현수준 유지, 천왕봉 콘크리트 존치(5안) ▲전체 기초부 콘크리트 존치(6안·건축물, 철책 제거만) 등 6가지 시나리오다.



복원 시나리오 3안 조감도-콘크리트 더미 완전 제거



복원 시나리오 6안 조감도-건축물·철책만 제거

복원 시나리오별로 최소 18억원에서 최대 187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복원 기간은 군부대 이전 후 최대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원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한 한백생태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그러나 군부대가 헬기장 건설과 미사일 발사대 설치를 위해 깎아버린 천왕봉 4m를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리고 식생까지 복원하는 ‘전체복원’ 시나리오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 2층 높이의 돌을 쌓는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훼손 등 또 다른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전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자료 또한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렇듯 지난 1930년에 작성된 지적도에 따른 천왕봉의 공식 고도인 1187m는 1183m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무등산동부사무소 측은 과거 정상부 자료 부족, 또 다른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주상절리대와 정상부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낸 지왕봉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인왕봉은 원형복원, 천왕봉의 경우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 방안(3·4안)이 가장 현실적인 복원방법으로 보고 있다.

무등산 정상 훼손을 시민 손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부대 이전 이후 건축 폐기물, 철책 등을 제거하는 선에서 복원 작업을 마무리 짓고 훼손 현장을 역사로 기록하자는 환경단체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무등산동부사무소는 전했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복원작업은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 이후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복원 방안을 결정할 이후 진행된다”고 말했다.

군부대가 주둔 중인 무등산 정상부에는 콘크리트 포장 면적만 2만㎡(국제규격 축구장 면적 3배)에 이를 정도로 훼손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무등산 정상부는 꽃창포·정향나무·백작약·어리병풍 등 희귀식물을 포함해 220분류군의 식물 서식처로 여전히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시가 체결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해질녘 17:21

달돋이 07:35
달지름 18:10

우산 챙기세요

차차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차차흐려져	4/10	보성	차차흐려져	2/11
목포	차차흐려져	4/10	순천	차차흐려져	5/12
여수	차차흐려져	7/12	영광	차차흐려져	2/8
나주	차차흐려져	1/9	진도	차차흐려져	5/11
완도	차차흐려져	6/11	전주	차차흐려져	2/9
구례	차차흐려져	0/10	군산	차차흐려져	2/8
강진	차차흐려져	3/12	남원	차차흐려져	1/9
해남	차차흐려져	3/11	흑산도	차차흐려져	7/11
장성	차차흐려져	0/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동~남동 1.0~1.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1.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동~동 1.0~2.0	서~북서 1.5~2.5

◇생황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자외선	낮음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5	02:14
	20:10	14:56
여수	02:58	09:37
	15:40	21:32

◇주간 날씨

11/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5/11	0/11	1/13	3/11	5/11	1/7	0/10

오후부터 비...그친 뒤엔 초겨울 추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총파업과 촛불집회가 열리는 30일 광주·전남지역에는 한 차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 광주·전남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가 내린 뒤 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로 평년(영하 2도~영상 4도)

보다 높고, 낮 기온은 9~12도로 평년(9~12도)과 같은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날 1일에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2월1일 오후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광주시·전남도 서석대 등 20곳 선정...2018년 4월 최종 결정

광주시와 전남도는 29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영문신청서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면적은 1051.36㎢로 광주시와 전남 담양군 전체, 화순군 일부가 포함된다.

지난달 7일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질공원 면적을 확대 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시·도(담양군, 화순군)가 협의해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면적을 확대했다.

지질명소로는 무등산 서석대, 서유리공룡화석지 등 20곳을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인 지질유산의 보존 및 이용, 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특별한 법적 규제 사항은 없다.

시·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시·도민 등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인증신청서와 함께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신청서 제출 뒤 유네스코에서 인증신청서 검토,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2018년 4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중·고생 학습 부진아 줄었다

전남은 늘어...중3, 전국 기초학력 미달 비율 최대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광주지역 중·고 등학생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오히려 늘어나 ‘기초학력 향상’ 정책과 공교육 대책이 겹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발표한 ‘20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교생 중 ‘학습 부진아’로 분류되는 ‘기초 학력 미달’ 등급자 비율이 3.6%로 전년도(4.1%)보다 낮아졌다. 반면, 전남은 4.4%로 전년도(4.2%)보다 높아졌다. 특히 전남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등급자 비율이 중·고교생 전국 평균(4.1%)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전복(5.4%), 강원(5.3%)을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 목표를 20% 미만으로 달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진급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 수준을 뜻한다.

과목별로는 광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이 2.9%로 전복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 중학교 3학년은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6.1%로 강원·전북 다음으로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해성 높은 생활화학제품 즉시 퇴출

내년 6월까지 일제 조사

정부가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한다. 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물질은 현행 72종에서 1천300종으로 대폭 확대해 필요하면 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 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크게 4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탁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법)상 위해우려 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질은 ‘살생물질 관리법’(가정·2019년 1월 시행 목표)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질’은 승인 받은 살생물질만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창사 40주년, 특별大행사

보청기 1+1 무료!!

보조금 (최대 131만원)

맞춤렌탈

구입

특전

باتدري 5년동안 무료!!

A/S 3년동안 무료!!

(렌탈 표준 가입비 없음)

50%

특별大할인

양쪽으로 잘 듣고 활짝 웃으세요!!

광주 직영점

062)430-8900

순천·여수 직영점

061)741-4880

전주 직영점

063)251-4999

대한보청기

DAEHAH HEARING AID

www.maxo.co.kr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